

SBS매거진 6

1999



'99 SBS연중 캠페인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TV Ch 6 / AM 792KHz / POWER FM 107.7MHz / 표준 FM103.5 MHz / <http://www.sbs.co.kr>

CONTENTS 6

1999 SBS MAGAZINE



항상 성실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는 탤런트 이재룡.
주말극장 「파도」에서 가난한 집 장남인 영준 역을 묵직
하고 진지하게 표현해 내는 그는 섬세한 연가를 위해
의식이 먼저 깨어있으려고 노력한다.

사진 / 조광희

SBS 매거진



- 4 「'99 기아체철 24시간」 · 강부길
- 8 SBS 드라마 스페셜 「해피 투게더」
상처 입은 다섯 형제의 행복찾기 · 김유석
- 14 일일시트콤 「행진」
엄앵란과 판유결이 캠퍼스에서 만나다
- 16 드라마 탐험 「그녀의 선택」
갈등과 좌절 속에서 선택하는 여자의 일생 · 주정미
- 22 스포트라이트 / 탤런트 김영애
그 「파도」에는 강한 어머니가 있다 · 김은정
- 24 커버스토리 / 탤런트 이재룡
배려의 미덕 갖춘 부드러운 남자 · 이병률
- 28 기자의 눈
재개발,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 · 박성규
- 30 스튜디오 큐 「머리가 좋아지는 TV」
TV를 보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 이성욱
- 32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세자매의 인생역정
- 33 이 달의 SBS 영화 특급
- 34 새내기 / 탤런트 임예원
이 푸른 꽃대궁에서는 어떤 꽃이 필까? · 한정엽
- 36 방송가 사람들
SBS아트텍 의상 스타일리스트 김민경
그의 손 끝에서 완성되는 드라마의 표정들 · 김명순
- 38 금강산 사진 판매
- 40 라디오 세상 / 표준 FM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문화 중독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 한현주
- 42 라디오 세상 / FM 「두나, 승현이의 텐!텐!클럽」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10대의 프로그램 · 김광태
- 44 시청자가 쓰는 방송평
-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 50 SBS방송아카데미 제8기 수강생 모집
- 51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SBS 매거진 1999년 6월호

● 통권 제91호 1999년 6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박준영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남지혜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 · 디자인 /
비 group,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권수석 인쇄 / 제일정밀인쇄, 전화 637-2311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옳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bs.co.kr>입니다.





'99 기아체험 24시간

연출 / 강부길

진행 / 박상원, 최선규, 송윤아, 이소라, 최영아, 김소연

출연 / 김혜자, 조민기, 이영애, 유승준, 김현정, 핑클 외

방송 / 6월 5일 오후 4시 20분~5시 50분, 밤 12시~1시 40분

6월 6일 아침 8시 10분~9시, 오후 5시~5시 50분

ARS : 700-1234 (6월 5일 오전 6시부터 7일 새벽 2시까지)

기아체험의 계절이 왔다. SBS가 월드 비전과 함께 3년째 마련하는 이번 기아체험에는 유난히 학생들로부터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1만 5,000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99 기아체험 24시간」은 전쟁과 재난의 몸살을 앓았던 지구촌을 돌아보는 해외 다큐를 강화하고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북한의 꽃제비들의 실상을 공개하며 제주도의 가상 난민캠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매머드성을 훨씬 강화했다.

「'99 기아체험 24시간」의 공간별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I 시청자들의 기아체험 인식에 관한 짧은 보고서

「'97년 기아체험 24시간」 방송 후

「기아체험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근데 굶는 거를 체험해요?

네.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98년 기아체험 24시간」 방송 후

「기아체험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 알아요. 가수 막 나오고 애들 굶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도 내년엔 꼭 가겠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99년 기아체험 24시간」 참가자 신청 마감 후

1만 5,000 명 참가에 5만 명이 몰려왔다.

협박과 으름장, 원망과 비난의 모든 향의 전화를 소화해야 했던

제작팀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안게 됐는데...





「'99기아체험 24시간」 공간별 구성과 시나리오

S# 1.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오, 사, 삼, 이, 일—스타트.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대회가 시작되면, 최소리의 북공원이 장내를 뒤흔든다. 박상원, 송윤아, 최선규의 진행으로 「기아체험 24시간」 개막을 알리고, 99년 지구촌 최대 수난지역인 코소보를 다녀온 조민기가 코소보 난민촌의 참상을 소개한다. 이번 개막쇼에는 0-24, 구피, 이기찬, 드렁큰 타이거, 포지션 등이 출연, 99년 개막 축하를 한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이 행사 전체의 중심 무대가 되며, 유승준, 김현정, 핑클 등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사랑나누기 콘서트가 펼쳐진다.

S#2. 코소보에서 꽃제비까지

1999년을 보내면서 지구촌 식구들은 유난히 많은 고통을 떠안아야 했다. 냉전 이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민족 분쟁과 그로 인한 내전, 그리고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해, 여전히 남아있는 기아의 고통으로 인해.

「'99 기아체험 24시간」에서는 이런 지구촌 상황을 직접 체험을 하고 온 많은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 코소보 내전, 아프리카 기아 상황, 콜롬비아 지진 이후의 참상을 생생히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이야기는 코소보. 인종 청소, 학살, 배고픔과 폭력... 20세기 말 가장 잔인한 민족 분쟁을 겪는 코소보 난민들의 실상이 생생히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99년 한해 한국인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북한의 꽃제비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 진흙 속에 묻힌 하얀 국수가락을 재빨리 집어먹거나 밥알을 주워먹는 여원 대로 여원 아이들... 북한의 실상이 그대로 전달될 북한 꽃제비들의 실상이 이번 기아체험에서 가감없이 소개된다.

S#3. 제주도 난민캠프체험

「'99 기아체험 24시간」의 핵심이 되는 이벤트가 제주 유채꽃밭에서 열린다. 제주도 무대에는 난민캠프가 들어선다. 허름한 텐트와 한뼉잠, 그리고 계속되는 배고픔이, 비록 가상 캠프일지라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Ⅲ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기아라는 말이 없어지길 기원하며...

배고픔은 인간을 가장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고통스러운 욕구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세기말, 이제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갈 인간들은 지난 세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배고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증가되는 각종 민족분쟁과 국지전은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은 그 가능성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어쩌면 「기아체험 24시간」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하게 될지라도, 지구 어느 곳에서도 기아를 찾지 못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아체험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기아 상태의 어린이를 찾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말로! **SBS**

새 드라마



SBS 드라마 스페셜 「해피 투게더」

상처 입은 다섯 형제의 행복찾기

연출 / 오종록

극본 / 배유미

6월 16일부터 수, 목요일 밤 9시 55분 방송

문득 문득 기억 저 깊은 곳에서 떠올라 슬그머니 입가에 미소를 매달아 놓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언제나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준다. 그 기억조차 없는, 오히려 잔인한 상처가 되어 기억 속에 앙금으로 남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까? 여기 그런 상처를 지닌 다섯 사람이 있다.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그들은 형제다.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십수 년 만에 만난 이들이 과연 반갑기만 할까? 그러나 어떤 분노, 어떤 상처도 가족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는 법.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면, 정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세상에 커피 없는 카페가 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커피가 없는 이유 또한 커피 메이커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그 '바그다드 카페'에는 가출해 버린 남편을 둔 아내, 친구가 없는 사춘기의 소녀, 모델을 구하지 못하는 화가, 또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피아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모여 있다. 말하자면 '바그다드 카페'는 이런 곳이다. 뭔가가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곳. 그래서 뭔가가 끊임없이 상실을 반복하는 장소. 결국 불모의 세계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바그다드 카페'에 모이게 된 다섯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으로 배신당한 상처에 집착하고, 그 배신보다도 배신을 한 사람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또 다른 '바그다드 카페'에 모이게 된 다섯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배신당했다는 상처 때문에, 서로 형제이면서도 일찍이 상실을 배운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가슴 속에 상처를 묻어둔 채 13년 만에 만난 다섯 형제

새 SBS 드라마 스페셜 「해피 투게더」는 바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다섯 형제들의 이야기다. 찬주·태풍·지석·문주·윤주, 이들 다섯 형제가 첫 배신을 겪게 된 사연부터 시작하게 된다. 아들 하나(태풍)가 달린 서인학은 아들 하나(지석)와 딸 둘(찬주·문주)을 가진 이순희와 재혼해서 또 딸 하나(윤주)를 낳게 된다. 서인학은 지방도시의 날건달이었고, 이순희는 음대 출신의 피아노 원장이었다. 그러나 그 둘은 곧 사고로 죽고 만다.

줄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다섯 형제. 그 중 이순희의 아이 셋은 친할머니가 거두지만, 서인학의 아이와 재혼해서 낳은 아이는 고아원으로 가면서 그들의 불행은 시작된다. 자신들의 불행이 엄마와 재혼한 서인학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자라



난 이순희의 세 아이들.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은 채, 고아로 힘들게 자라난 나머지 두 아이들. 그렇게 그들만의 상처를 안고 헤어진 지 13년 후인 지금, 그들 다섯 형제들의 극적인 해후가 이루어지면서 이 드라마는 시작된다.

첫째 딸 서찬주(조민수 분)는 18세 때 친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출지에 처녀 가장이 되었다. 그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화방'을 운영하며 오직 동생들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 그러나 남동생 지석(송승헌 분)은 검사라는 직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여동생 문주(강성연 분)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한 마음의 틈새 때문에 거리가 생겨서, 지금은 외롭기만한 노처녀다. 자신의 불행이 모두 태풍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녀 앞에 어느 날 어려서 헤어진 태풍(이병헌 분)이 나타난다. 우연히 동갑내기 동생 지석을 만나게 된 태풍이 반가운 마음에 주소를 알아 가지고 찬주를 찾아 온 것. 그러나 그녀는 반갑기는커녕 태풍으로 인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형제애와 사랑의 갈등, 행복을 찾아가는 먼 여정

찬주의 냉담한 반응과는 달리 마냥 기쁘기만 한 태풍. 그는 고아로 자랐지만, 아버지 같은 건달이 되기 싫어 운동 선수가 되었다. 능력은 있으나 노력과 끈기가 다소 부족해 지금은 프로 야구 2군 선수로 뛰고 있는데,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퇴출 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부상으로 입원해 있을 무렵 태풍은 진수하(김하늘 분)를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된 그녀는 공교롭게도 지석의 애인이었다. 수하를 통해 우연히 지석을 만나게 된 태풍은 어려서 헤어져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형제들을 찾았다는 기쁨에 목이 메이지만, 수하가 지석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만 실망한다. 그러나 사랑보다는 형제애를 택하는 태풍. 그는 그저 지석과 수하, 이 둘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런 반면, 태풍을 만나게 된 지석은 영 불쾌하다. 태풍의 아버지 같은 단순 무식한 건달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 검사가 된 지석이 자신의 애인인 수하를 사이에 두고 태풍을 만나다니... 태풍이 자신의 형이라며 친한 체하는 것만으로도 못마땅한데, 나중에는 지석과 수하 사이를 도와준다고 멋대로 끼어들기까지 한다. 찬주, 지석과는 달리 태풍에게 우호적



오종록 프로듀서가 말하는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는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휴먼 · 코믹 · 멜로 드라마'다. 휴머니즘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되, 진지하기보다는 다소 코믹한 터치로 접근하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멜로의 성격을 더한 것이다.

「해피 투게더」는 작년에 「내 마음을 뺏아봐」를 만들 때부터 구상했던 작품이다. IMF 체제 이후, 급속히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덩달아 이혼율도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 그래서 진솔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지금까지 대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형제들 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많았다. 하지만 「해피 투게더」에서의 축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곧 1대 형제들만의 이야기라고나 할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세 가지 색깔의 피를 가진 이복형제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는 거기에 각 인물들의 애정 관계를 더했다.

드라마는 일단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드라마는 방송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 이유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은 반드시 드라마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감동은 물론, 경쾌한 즐거움이란 이런 것임을 반드시 보여 주겠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지닌채 상반된 성격으로 13년 만에 만난 이병헌과 송승헌, 형제인 이들 사이에
공교롭게도 김수하가 등장해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되는데...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섯 형제의 대립과 사랑의 극복 과정이 드라마 「해피 투게더」에서 경쾌하게 그려진다.



인 입장을 취하는 문주는 찬주, 지석과 같은 남매지간임에도 어려서는 엄마와 태풍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씨앗으로 오해를 받은 바 있다. 결국 그 오해는 풀리지만, 응어리진 가슴을 쉽사리 풀 수 없었던 문주는 문제아로 자라나 지금은 나이트 클럽의 댄서로 일하고 있다. 오해로 생긴 벽 때문에 찬주, 지석과의 관계는 최악이지만, 태풍과는 기질적으로 비슷해 마음이 통하는 관계다.

한편, 서인학과 이순희 사이에서 태어난 윤주(전지현 분)는 어려서 태풍과 같이 고아원으로 가지만, 곧 입양되는 바람에 태풍과도 헤어지게 된다. 입양되어 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출했던 이력을 지닌 소녀 가장으로 지금은 음대생이다. 다행히 큰오빠 태풍의 행방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 늘 그 주변을 맴돈다. 그러나 선뜻 태풍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윤주. 강신엽(차태현 분)이 짝사랑할 만큼 그녀는 눈부시지만, 정작 그녀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저마다 자신만의 명분으로 복잡한 가슴앓이를 안고 사는 다섯 형제들. 그러나 새 SBS 드라마 스페셜 「해피 투게더」는 그런 다섯 형제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가족애(형제애)를 복원시켜 가는지 그 과정들을 그려나가고 있다.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행복의 결과들을 얻기 위해 이들 다섯 형제가 겪게되는 그 멀고도 험한 이야기. 그 힘든 여정 끝에는 'Happy Together'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재미없는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해피 투게더」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안고
전개되지만 극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코믹하면서 멜로의 성격까지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함께
요란스럽지 않은 웃음까지 선사할
것이다. 또한 개성이 강한 극중
인물들의 성격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게 될 것이다.

삶이란, 세월이라는 강물로 씻어 낼 상처

오랜만에 TV에 복귀한, 「백야 3.98」의 이병헌과 「승부사」의 송승헌, 그리고 “평~생”이란 휴대폰 CF로 급부상중인 신세대 스타 차태현 등의 화려한 캐스팅. 여기에 TV 드라마 출연은 처음인, 뮤직 비디오 'To Heaven'의 여주인공 김하늘과 SBS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선보이게 된 강성연. 그리고 올해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에 빛나는 전지현과 CF계의 유망주 한고은 등의 청춘 스타들이 새 SBS 드라마 스페셜 「해피 투게더」에 대거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유예(猶豫)의 시간들이 있는 법이지만 그 시간 또한 어느새 물처럼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유예의 시간들을 불행이니 미로였다는니 하는 말로 미화시키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삶의 한켠에 조심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그 시절을 모욕하는 일일 테니까. 그 시절은 그저 그 시절의 모습대로 가슴 한 구석에 저장해두면 그만이다. 짐짓 윤색하려 하거나 기억에서 지울 필요는 없다. 그 시절은 그 시절 나름대로 각자에게 힘들었지만, 때로는 보람도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으니까. 결국 스스로를 달랠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깨닫자. 삶이란, 세월이라는 강물로 씻어 낼 수 있는 상처 같은 것이라는 것을. **SBS**

글 / 김유석 · 자유기고가, 사진 / 서창식



청춘시트콤 「행진」

엄앵란과 판유걸이 캠퍼스에서 만나다

연출 / 최성인, 이용해
월~금요일 저녁 6시 45분 방송

청춘 시트콤 「행진」은 개성 강하고 재주 많은 요즘 대학생들의 문화를 보여줄 대학 응원단과 밴드부,

그리고 이들의 하숙집을 주요 배경으로 펼쳐지는 캠퍼스

시트콤이다. 캠퍼스를 무대로 한 시트콤답게 출연진을 보면

신세대 스타 송혜교, 이요원, 김윤경, 송창환, 이규환, 류시영,

「기쁜우리 토요일」이 낳은 스타 판유걸 등이 대거 등장한다.

여기에 시트콤에 처음 출연하는 영화배우 엄앵란, 주말극장 「은실이」의

히어로 성동일, 진한 연기로 주목받는 김정은, 탤런트로

자리바꿈한 가수 김현정, 「카이스트」를 계기로 연기에 입문한

개그맨 정성화, 「나 어때」의 정은표, 송은이 등이 합세, 건강한 웃음을 선사한다.







아침연속극 「그녀의 선택」

갈등과 좌절 속에서 선택하는 여자의 일생

연출/ 오세강, 이용석
극본/ 한준영
월~토요일 8시 30분 방송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하고, 또 다른 선택을 잉태하기도
한다.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선택이
아쉬움만을 남긴 채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운명이라고 한다.
아침 드라마 「그녀의 선택」은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여인의
선택이 주요 테마로 등장한다.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가늠해보게 된다.



저 대하고 고운 물뿌리개로 흠뿌리면 이렇게 고운 보슬비가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초여름 오후, 태릉 서울여대 입구. SBS 「그녀의 선택」 촬영팀에선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으면서, 여전히 기죽지 않고 기세 등등한 알미운 아버지 김철구(정동환 분)가 큰딸 친구인 미란(이경화 분)을 통해 부자 사뭇감의 배팅 지수를 가늠해 본다.

“미란이라, 이름도 참 예쁘네.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에 계란 할 때 그 난자 쓰냐?”

“(뽀루통) 아뇨 난초 할 때 난짚데요.”

“아, 그 난이 있었지. 난초똥팔삼할 때 그 난...(사이).”

행여 때를 놓칠세라 오세강 프로듀서가 연기자를 곁으로 간 뜰을 타 스태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재빨리 말한다.

“철구 말투,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 안 해?”

“누구?”

“(홍내 내며) 그래, 그러면..., 그런 거네...”

“(잠시 조용하다) 짹짹... 세강이 형이네.”

자리로 되돌아오다 석연찮은 김새를 눈치챈 오세강 프로듀서, 무안한 김에 뻑 소리만 지른다. 이어 스태프들의 폭소가 이어지고.

선택은 언제나 또 다른 선택을 낳는다

아침 드라마 「그녀의 선택」은 여주인공의 선택이 주요 테마인 단순 구조이면서도, 네 명의 등장 인물들이 텔리케이트하게 얹혀 있다. 자본주의 사회 척도로는 당연히 가난한 축에 끼는 디자이너 지망생 연희(강문영 분), 그런 연희를 사랑하면서도 가난을 구속이라 여기는 미술학도 최형민(이진우 분)은 부유하지만 자의식 강한 여회수(김혜리 분)와 결혼한다. 그리고 연희를 두고 우정과

드라마 「그녀의 선택」을
 가로지르는 갈등의 큰 기둥은
 자신을 희생하는 소극적인 성격의
 연희와 갖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야 하는 여희수, 두
 사람이다. 이들 사이에는
 시작부터 어긋난 선택이 가로
 놓이게 된다.



사랑의 사이т길에서 배회하는 착한 남자 이승국(안정훈 분)이 있다.

청담동 줄리아나 갤러리 입구에 선 강문영은 약간 긴장된 모습이다.

“솔직히 설레었어요. 촬영을 앞두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치 소풍을 앞둔 것처럼. 2년 반 동안 쉬었지만 같이 일해 본 연출진이어서 적응은 잘 됩니다. 연희가 우유부단하다고? 외유내강형이죠. 속에는 강한 자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이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이진우는 자신이 맡은 비극적인 아티스트 최형민을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역입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속일 수도 없어 비겁한 선택을 한 인물이죠. 최형민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였어요. 드라마에선 꼭 있어야 할 인물이지만 비난받을 소지가 많아서…. 이왕 하는 거, 밋밋한 타당성 있게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희수의 미운 행동들이 그럴 만하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김혜리는 미운 역할 한 번 해달라는 섭외에 미운 역할도 정말 미운 역답게 제대로 해보자는 야무진 심정으로 달려들었다. 이에 비해 안정훈의 말은 좀더 의미심장하다.

“이승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게 요즈음의 사랑 행태 아닌가요. 대가 없이 묵묵히 순수한 사랑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연희의 어머니(윤미라 분)는 파출부, 여희수 어머니는 병원 원장 사모님에다 갤러리 소유주. 이처럼 극단적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준다.
주인공 연희는
요즘 시대에는
보기 힘든
순수하고 계산
없는 사랑의
소유자이다.
연희를 통해
우리들은
순수했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된다.

로 설정된 환경은 여주인공들의 상반된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고생하는 어머니의 기대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소극적인 연희, 그리고 사랑도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쯤으로 치부하는 여희수는 드라마 「그녀의 선택」을 가로지르는 갈등의 큰 기둥이기도 하다.

연희를 사랑하는 감정을 숨긴 채 여희수와 결혼한 최형민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시작부터 어긋난 선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은 아니다. 연희는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형민이 남긴 그림들을 잃게 되고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는 승국의 어머니(정영숙 분)에게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은 언제나 또 다른 선택을 낳는다. 그녀의 선택은?

대사속에 녹아 있는 이야기꾼의 저력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주변 여건에 따라 인생의 큰 줄기를 선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래도 결국 인생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라고 말하는 작가 한준영에게서는 무거워 보이는 주제에서 흠집 없이 그 무게를 덜어내는 특유의 재치가 돋보인다. 그의 대사를 보면 단 한 번의 웃음으로 무거운 일상을 날려보낼 힘을 가진 이야기꾼으로서의 저력이 잘 녹아 있다. 이런 면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돈 얘기도 먼저 꺼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 김철구, 연에게에 몸 담고 있지만 집안은 내면 세계를 중시하는 뼈대 있는 선비 가문임을 강조하는 매니저 장봉남(이재포 분) 등은 그의 진가를 재삼 확인시켜 줄 캐릭터들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오래된 포도주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영상에 실려 올 「그녀의 선택」을 같이 고심하는 흥미를 즐기게 될 것이다. **SBS**

글 / 주정미 · 자유기고가, 사진 / 김연식



인터뷰 · 오세강 프로듀서

오세강 프로듀서에게는 그 흔한 핸드폰이 없다.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인데도... 일과 개인사를 철저히 가려 집으로 일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한 스태프에게 자택 전화번호를 묻자 침통한 목소리로 “그건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했을까.



작가 한준영 씨와 같이 작업해 왔는데...

「남자 대탐험」, 「여자」 등을 같이 했다. 젊은 작가군에 속하고, 무엇보다 재치가 있어 상황을 자연스럽게 짚어내 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그녀의 선택」에서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솔직히 「청춘의 덫」도 그렇고, 계산 없이 순수한 사랑은 보기 힘든 게 요즘 세태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것도 어렵고... 요즘 세대들은, 차이가 있다 싶으면 아예 사귀질 않는다. 그런 면에서 30~40대는 순수했던 지난 시절을 보고 싶어한다. 주인공 연희의 선택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을 필터를 통해 한 번 걸러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산된 것들이 찌꺼기로 걸러지면, 남는 것은 순수한 사랑뿐이다.

아침 드라마로, 주시청자가 주부들이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자신들의 순수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선택'은 지금의 주부들이 다들 한 번씩은 겪었을 과거의 일이다. 자신이 선택했던 순간을 회고하고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라. 드라마는 카타르시스를 위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 「파도」에는 강한 어머니가 있다

김영애

탤런트

김영애는 속도를 알고 있는 연기자다. 어느 순간 빠르고 거칠게 몰아갈 것인지, 어느 순간 느리고 완만하고 그래서 굵뜨기까지 한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를 알고 있다. 김영애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는 「파도」속의 어머니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을 접어둔 채 가장 자연스러운 억척 어머니를 연기한다. 초라함과 누추함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힘, 김영애에게는 그 힘이 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낡은 사진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흑백 사진 속에서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처녀는 바로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사진 속의 처녀와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를 일치시키는 데에는 약간의 혼돈이 따른다. 어머니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가? 그 시절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때로는 인생이 너무 두려웠던 적은 없었을까? 흑백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모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너무 낯설고 조금은 쓸쓸하다.

세월을 이는 사람만이 속도를 알고 있다. 파도를 탈 때, 파도의 힘과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어떤 파도는 너무 강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내맡겨야 한다는 것을, 어떤 파도는 저항을 함으로써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말극장 「파도」에서 삼남매의 어머니 김영애는 그 속도를 잘 조절한다. 세월의 파도, 인생의 파도는 저항과 내맡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행동하는 어머니다.

세월이 쌓여가면서 그 연기의 속도는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 한없이 자애롭고, 편안하고, 너그러운 어머니부터 한없이 냉정하고, 표독스럽고, 냉철한 어머니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차츰 「파도」 속의 어머니인 김영애의 속도감에 맞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란 존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어머니들은 강하다. 자식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단단하고,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과연 그토록 강한 어머니에게 처녀 시절의 수줍음이 남아 있는지를 잊곤 한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도 마음 속에는 지난 시절의 꿈과 추억이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뚜렷하게 세월을 느낀다. 세월은 흐른다지만, 사실은 쌓여가는 것이다. 자식들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나

날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책임감은 더욱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식의 편에 서서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의 속도를 표현할 줄 아는 연기자

인생이 파도처럼 흔들린다고 느낄 때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데 김영애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영애는

목소리가 아름답다. 아주 흔한 대사 한 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영애가 던지는 모든 대사는 귀에 또렷하게 들리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다.

자신이 낳은 자식과 맞서야 하는 어머니,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키운 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또 다른 어머니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긴장감을 준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모성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파도」 속의

어머니가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파도」 속에서 김영애는,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말하는 수다쟁이다. 그럴 때 김영애는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는 강인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말하면서 중년의 외로움을 표현한다. 그럴 때 김영애는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힘에서 자신의 약한 면을 느끼는 모든 어머니들이 느끼는 고독함을 깨닫게 해준다.

「파도」에는 강한 어머니가 있다. 서른셋이란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떠맡아 세상의 파도 속을 헤치며 살아가는 어머니다. 자식들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끔은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기도 하다. 그런 어머니상을 연기하는 김영애는 세월의 속도를 알고 있다. **SBS**

글/김은정·소설가, 사진/서창식





언제 보아도 성실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왠지 성실해 보이고 믿음이 가는, 바로 탤런트 이재룡이 그런 남자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 '연기자' 라는 직업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 그것이다. 그때마다 그는 '연기' 가 주는 매력에 몸을 의지하고 버틸 수가 있었다.



탤런트 이재룡

배려의 미덕 갖춘 부드러운 남자

이재룡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람들 속에 과묵히 있을 때의 그가 발하는 진가는, 모든 것들이 혼합되고 섞이어 제 빛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에는 묻혀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때에는 돋보이기 쉽기 마련인데, 이재룡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것이 요즘 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그의 동료들이 말하는 그의 모습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는 단지 '사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든가 '모난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요즘 세상에 나눔이라는 것이 힘들어진 것은 물질의 힘 때문이겠지만, 이재룡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특유의 기질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 함으로써 함께 마음을 섞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SBS 주말극장 「파도」에서 그가 맡은 역은 영준.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항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뭇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인물이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키워왔던 여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여자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배역. 그래서 작가 김정수로부터 묵직하면서도 진지한 사랑을 하는 인물로 연기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의 그 또한 작가가 원하는 의미에 공감하고, 톤이 다른 섬세한 연기를 위해 의식이 먼저 깨어있으려고 하는 편이다.

편안하고 성실해 보이는 TV 속의 이미지가 실제의 이재룡

“영준이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이유로 사랑 앞에 당당하기보다는, 사랑이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그러다가 사랑이 마침내 찾아오면 큰 가슴으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요즘 시대에 흔히 볼 수 없는 남자죠.”

“연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기란 진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우의 역할이란, 대중들에게 다양한 삶을 맛보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의 연기’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드라마 속의 인물에 정직하게 이입해 나가는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을 모나지 않아서 편안한 사람, 웬지 성실해 보이면서 믿음이 가는 사람,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사람쯤으로 사람들이 봐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면이 많기는 해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항상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려고 노력하죠. 힘든 일이라도 잘 참고 잘 견디는 편이구요. 가능하면 사람들을 깊이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물론 자주 만나는 편은 못되지만, 사람 사이의 깊이라는 게 반드시 만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내하고도 처음엔 그랬어요. 둘다 연기자로 바쁘다보니, 단들이 있기보다는 여럿이 어울리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젠 아내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결혼생활이구나’ 하는 거 같아요.”



연기자가 되어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만난 것보다 값진 건 없다고 말하는 이재룡. 그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찾아서 떠나는 방랑자의 체취가 배어난다. 그래서일까? '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그는 여행을 꿈꾼다.

힘들 때마다 그를 버티게 해 준 것은 '연기'가 주는 매력

10년이란 시간 동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그만 둘까 하는 고민도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었을 것이다. 열악한 제작 환경이나 미숙한 방송 풍토,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가 이해하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연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다. 속칭 '판따라'로 싸잡아 표현될 때 자신이 천박해지는 느낌들. 그러나 그 때마다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연기'가 주는 매력이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늘상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듯이, 간혹 '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면 그는 무엇을 할까. 그는 여행을 꿈꾼단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꿈'에 그쳤지만, 꿈 속에서라도 그는 산과 계곡과 푸른 하늘을 만난다. 그 여행길에 누구와 동행할까 하는 상상도 곧잘 한다. 아내, 친구, 동생들? 아니면 햇빛, 술, 별, 바닷바람 같은 것들과 함께?

연기자가 된 후에 얻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재룡.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도 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처음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건 호감도 거부감도 가지지 말 것. 일단은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한단다.

방랑을 꿈꾸는 이재룡. 방랑은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는 표현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선해 보이는 눈빛 속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음을 읽을 수 있었다. **SBS**

재개발,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

지난 4월 15일, 서울 행당동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앞.

“조합원 동의 없는 추가 부담금 철회하라!”

“170억이 웬 말이나. 입주부터 허용하라!”

말끔하게 단장한 새 아파트의 입주 첫 날. 이삿짐 트럭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아파트 입구 한켠에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입주할 생각은 않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공회사와 조합 집행부 성토장이다.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구경꾼 아닌 시위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구경을 많이 한 탓일까, 분노가 앞섰기 때문일까. 사실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시공 회사측이 열쇠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금이 뭐길래 이토록 조합원들의 분노를 산 걸까. 조합원들은 끝내 관리사무소로 몰려갔다. 주먹다짐 일보직전. 대화는 없고 삿대질과 욕설에 가까운 고향만이 오갔다. 메아리 없는 항의와 일방적인 해명을 주고 받았을 뿐, 어느 한쪽도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추가 부담금, 시공 회사의 무리한 요구

관리팀장의 해명은 이랬다. “공사비를 조합에서 3개월 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조합이 돈을 내지 않았으니 연체료를 내야 할 것 아니냐? 시공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지 않느냐. 170억 원을 받아도 우리가 손해다. 원래는 400억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양보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항의한다. “추가 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내역을 알고나 내자는 것이다. 그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입주 한 달 전에 한두 푼도 아니고 가구 당 3, 4천만 원씩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중간에 공

사비를 평당 16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40 퍼센트 가까이 올리지 않았느냐?”

밀고 당기는 싸움은 이날 밤의 불상사로 이어졌다. 시공회사가 열쇠를 내주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이 문을 따고 입주한 것이다. 그러자 시공 회사측은 문짝을 떼갔다. 전기와 수도도 끊었다. 추가 부담금을 놓고 시공 회사와 조합원들의 싸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추가 부담금과 함께 잦은 갈등을 불러오는 게 공사비 인상 문제다. 세입자들의 철거 반대 타워 크레인 시위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 도원동 재개발지역. S건설이 재개발 공사를 맡은 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이 재개발 조합도 지난 4월에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삐걱대고 있다.

조합장의 구속 사유는 시공 회사측으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고 철거비를 조합 부담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실제로 평당 건축비는 40 퍼센트 가까이 올랐다. 시공 회사측은 표준 건축비 인상분과 함께 예기치 않았던 암반 굴착에 따른 토목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것이지만, 조합원들은 구속된 조합장이 시공 회사 편에 서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올렸다고 믿고 있다.

새로 뽑힌 조합장에게는 업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선출 당시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합장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얻기까지 변호사 비용 같은 뒷돈은 시공 회사측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시공 회사는 상대하기 골짜러운 조합장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재개발 아파트는 이렇게 늘 말썽을 몰고 다닌다. 건설 교통부나 자치단체에는 재개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의 유착이다. 한 재개발 현장 근무자의 말은 조합 집행부에 흘러가는 검

조합원 지분의 재산 가치나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는 한 몸이 된다. 분양가를 부풀리려 인가권자인 구청을 공략한다. 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 몫으로 돌리는 계약서를 만든다. 조합원들은 쉽게 공략된다. 관리 처분 단계에서 시공 회사와 체결하는 가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의 꿈에 부푼 채 계약서의 내용도 모른 채 넘어가기 일쑤다.

은 돈의 원천이 얼마나 다양한 지를 보여준다.

“시공 회사의 로비는 재개발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시공 회사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금품·향응 로비를 벌인다.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의 유착이 빚어지는 단초다. 시공사로 결정되면 ‘주주보상금’ 명목의 거액이 추진위원장에게 건네진다.”

철저히 무시되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

“정식으로 조합이 결성되면 추진위원들이 집행부를 맡는 것이 통례다. 시공회사가 이미 로비를 통해 구워삶은 추진위원들을 밀어주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분의 재산 가치나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는 한 몸이 된다. 분양가를 부풀리려 인가권자인 구청을 공략한다. 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 몫으로 돌리는 계약서를 만든다. 조합원들은 쉽게 공략된다. 관리 처분 단계에서 시공 회사와 체결하는 가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의 꿈에 부푼 채 계약서 내용도 모른 채 넘어가기 일쑤다. 게다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서 나는 이익은 표면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도 돌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공 회사 배 불리기다. 이익이 나는 게 뻔하면 설계 변경 등을 조합에 요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묵인한 채 뒷돈을 챙긴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도 실제로는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가 나눠 먹기 일쑤다.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도금 형태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시공 회사가 감리업체와 짜고 사업 진척도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미리 받기도 하는데 이를 감시해야 할 조합 집행부는 그저 눈을 감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조합원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 이런 비리를 못 막아 낼 것도 없

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쁘다. 조합원들의 ‘모래알’ 속성을 시공회사나 조합 집행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시공 회사와 조합 집행부만 손을 잡으면 공사비 인상에서 추가 부담금까지 못할 것이 없다. 절차는 있지만 요식일 뿐. 조합원 중에는 조합원과 시공사 또는 조합 집행부의 갈등을 이용해 협조 대가로 시공사에 땅을 사달라느니 물품을 대게 해달라느니 하는 사람도 있다. 조합원들은 잘 되려니 지켜보고 있다가 공사비 인상이니 추가 부담금이니 하는 것들이 결정될 때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의 김성배 간사의 말. “참여연대에 접수된 재개발 비리 관련 민원이 100여건이다. 공통점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결성에서 입주 때까지, 공사비 인상이나 추가 부담금, 청산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수기 노릇을 한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대부분 시공 회사나 조합 집행부의 전략에 무너진다. 결국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이해시키는 절차를 제도화시켜야만 재개발의 또다른 이름인 ‘갈등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식 행정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대로는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SBS**



글 / 박성구 · 보도본부 기자

TV를 보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머리가 좋아지는 TV」

연출/ 성영준

진행 / 김승현,정은아

수요일 저녁 7시 15분 방송

진행자는 '선생님' 이고 출연자는 '학생' 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기까지 하는 유익한 프로가 바로 「머리가 좋아지는 TV」이다. 시청자는 이 프로를 보면서 슬며시 '내 머리가 이 정도였나' 라고 반성하게 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질문으로 학생과 시청자를 위협한다. 그러나 정말 재미있다.

제 제작진은 머리가 부서질 듯 아프고, 진행자는 머리가 커지고, 시청자는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지는 TV」의 진행자 김승현이 재치있게 정리한 프로그램 성격이다. 김승현, 정은아의 머리가 정말 커졌는지는 의문이지만 제작진과 시청자를 가리켜 한 말은 진실인 듯하다. 실은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가 늘 골치가 아프다. 왜? 잘 만들려고 머리를 쥐어짜니까.

엄밀히 말해 시청자 머리가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시청자 두뇌를 자극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프로를 보다보면 '저 연예인보다는 내 머리가 조금은 좋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슬며시 사라진다.

1교시 아이큐 테스트의 개인별 퀴즈를 풀면서, 이제 겨우 문제를 이해하겠는데 7명의 출연자중 절반 가까이가



벌써 정답을 맞춘다. 게다가 그들은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는 여유로운 모습이 아닌가? 제작자와 출연자가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면 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머리를 너무 썩히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반

성의 시간을 잠시나마 갖게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프로그램 제목이 가진 소임은 다한 게 아닐까.

성냥개비가 쉬울까, 볼링핀이 쉬울까?

2교시 특별 수업에 들어가면서 1교시에서 긴장하고 움츠러든 마음은 서서히 풀어진다.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출연자들이 「유쾌한 청백전」처럼 직접 행동으로 퀴즈를 해결하는 데, 시청자로는 비로소 방송을 즐기며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다. 출연자들은 말뚝 크기의 성냥개비로 갖가지 도형을 만들거나, 공을 던져 쓰러진 볼링핀



의 번호에 따라 힌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식이다. 다분히 게임 성격이 짙다.

3교시는 매주 내용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문제로 꾸며 출연자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일식·중식·한식을 상품으로 내걸고 퀴즈 풀이 경쟁을 시키기도 한다. 프로그램 모양새는 학교의 틀을 충실히 따랐다. 진행자는 '선생님' 이고, 출연자는 '학생' 이다. '몇 교시' 라는 순서가 특히 그렇다. 자칫 입시 준비에 허덕였던 악몽 같은 학창 시절이 떠올라, 머리가 좋아지게 궁리하기는 커녕 방송을 외면하지나 않을까. 성영준 프로듀서는 그러나 지나친 우려라고 말한다.

오락을 핑계로한 교양 프로그램

"주요 시청층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은 30대가 많아요. 30대에게는 학교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교육 현장에는 새로운 학습법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의 틀을 가져왔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로서 '학교 수업이 이렇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내심 바라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TV」는 교양 파트가 아니라 예능 파트에서 만든다. 혹자는 교양이나 교육적인 성격을 듬뿍 가미하는 요즘 오락물의 추세에 시비를 건다. 정말 기발한 재미나 정치·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통해 통쾌한 재미를 만들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자꾸만 곳에 눈길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교양의 탈을 쓴 오락' 이 아니라 '오락을 핑계로 한 교양물' 이라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난다.

성영준 프로듀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미를 쫓는 프로그램들이 정작 훌륭한 프로그램을 배제시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을 깨고 일정 시청률을 유지해 몹시 반갑고 시청자들이 고맙다"고 말한다.

제작진을 애먹이는 건 따로 있다. "그 프로 봤는데, 머리 아플 것 같고, 창피당할까봐 못나가겠다"고 일단 출연을 거절하고 나서는 연예인들에 대한 섭외다. **SBS**



세 자매의 인생역정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원제: 삼타화

감독: 정건영

주연: 유설화, 유소범, 장패화, 도내린

방송: 5월 31일부터 월~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펜 하나로 중국 12억 인구를 울린 감성의 작가 '경요'. 그의 대표작 육개몽(六個夢)의 여섯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삼타화(三朵花: 세송이 꽃)가 드라마로 제작되어 SBS 특선 외화 시리즈로 5월 31일부터 방송되고 있다. 경요의 자전적 요소가 내포된 「세자매」는 어머니와 세 딸의 2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인생을 감동과 슬픔으로 그려낸다.

1920년대 중국 호남성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란 장여패는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대학생 맹운주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결국 사랑을 선택한 장여패는 가족을 포기하고 집을 나와 맹운주와 살림을 차린다. 온갖 고생을 겪으며 장여패는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고 유학까지 보낸다. 그사이 둘 사이에는 예쁜 딸이 셋이나 태어나게 된다. 행복한 나날을 기대하며 남편을 기다리는 장여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철저한 배신. 이 후 그녀는 혼자 힘으로 세 딸을 키우면서 세상 모든 남자에 대한 증오심을 세 딸에게 철저히 가르친다. 그러나 성장한 세 딸들은 장여패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사랑 방정식으로 각자의 남자를 택한다. 어머니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그들에게 인생유전은 어쩌면 이토록 칼끝처럼 매서울까? 세 자매 역시 어머니가 겪었던 아픈 사랑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SBS**

동방삼협 II

감독/정소동, 두기봉 · 주연/매염방, 양자경, 장만옥

방송/6월 4일 · 담당PD/이경숙

핵폭발 뒤, 지구는 오염된 물 때문에 기형 인간이 나타난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왕희장은 정수회사를 차려, 비싼 값으로 물을 독점 공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에선 깨끗한 수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고 희생자만 늘어간다. 지난 날 정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동방삼협 동동(매염방),신정(양자경), 진철(장만옥)이 모처럼 한자리에 다시 모여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을 찾아내지만...

깃어웨이

원제/(Getaway)

감독/로저 도널드슨 · 주연/알렉 볼드윈, 킴 베이싱어, 제임스 우즈

방송/6월 11일 · 담당PD/송길우

닥 맥코이(알렉 볼드윈)는 죄수를 탈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대신 감옥에 가게 된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닥의 아내 캐롤(킴 베이싱어)은 남편의 친구이자 조직의 두목인 잭 베논(제임스 우즈)을 찾아가, 금고를 열어 거액을 상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닥의 보석을 추진한다. 캐롤의 미모에 현혹된 잭은 닥을 감옥에서 빼내고, 닥은 아내 캐롤과 은행털이에 나선다. 은행털이에 성공한 닥은 아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되고 악당들간에는 암투가 생겨 죽고 죽이는 대혈투가 벌어지는데...

이달의 SBS 영화 특급



channel 6 cinema

도학위룡 III

감독/왕정 · 주연/주성치, 매염방, 양가인, 장민

방송/6월 18일 · 담당PD/김하정

백만장자 왕백만이 호텔 방에서 두 손이 침대에 묶인 채 송곳에 찔려 죽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형사반장(양가인)은 대원 주성기(주성치)를 왕백만의 집으로 보내 범인을 찾아내도록 명한다. 주성기의 모습이 피살된 왕백만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지만 알고보니...

패스트 깃어웨이2

원제/Fast Getaway · 감독/ 올리 새슨. 주연/코리 헤임

방송/6월 25일 · 담당PD/이경숙

보안회사의 파트너인 넬슨과 패트리스는 은행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강도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FBI수사관 랜킨 요원은 넬슨과 그의 아버지 샘을 의심하고 보험사의 프랭크 미라는 이를 보험사기로 추정한다. 한편 패트리스는 넬슨의 어린애 같은 성격과 가짜 은행강도 역할에 실증을 내고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코믹한 연기와 감각있는 비트의 음악들이 잘 어우러진 코믹 액션물.

이 푸른 꽃대궁에서는 어떤 꽃 이 필까?

탤런트 임예원

차츄 먼동이 터 오고 있다. 아직 희부연 사위, 열은 안개는 눈물 같은 이슬로 자신의 자취를 남긴 채 사라진다. 유리 조각처럼 신새벽을 뚫고 오는, 그 햇빛 아래 선 저기 저 꽃 송이들의 아침...그 속에 수줍은 듯,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찔끔한 의지를 줄기와 잎새 속에 여미고 선, 희고 푸른 칼라 꽃 한 송이가 있다. 잎새에 맺힌 이슬이 영롱한 빛으로 아침을 반사한다. 이제 마약 솜은 새내기, 탤런트 임예원의 눈망울처럼 말이다.

당돌한 귀염둥이 막내 딸

임예원. 1980년생인 올해 만 열아홉의 앳된 소녀로 현재 SBS 주말극장 「파도」에서 주인공 삼남매 중의 막내딸 박영미 역으로 출연 중인 새내기다. 극중의 영미처럼 그녀 또한 가족에게 가장 귀염받는 막내딸이며 아직은 철이 없는 만큼 순수한 또래. 때문에 영미를 자기 자신의 투영이라 느낄 만큼 그 캐릭터가 친근하

기도 할 텐데, 실제로 임예원이 풍겨 내는 이미지 또한 그 나이의 꿈 많고 순수하면서도, 때론 당돌하고 겁 없기까지 한 소녀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아마도 그녀에게서 '열혈'과 '순수'를 상징하는 꽃, 그러나 아직은 만개하기 전의 길고 푸른 꽃대궁과 곧게 휘감은 칼라의 하얀 꽃잎을 그리게 된 건 그래서였을까? 그 꽃잎은 아직 열리지 않은 그녀의 가능성과 미래를 여미고 있을 게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 중앙대 연극과에 1학년에 재학중인 임예원은 익히 알려진 대로 중견 탤런트 임동진 씨의 딸이기도 하다. 아니 지금은 '임예원'이라는 이름보다 '임동진의 딸'이라는 사실이 더 세간의 관심을 끌지도 모른다.

온갖 풍상(?)의 삶을 살아 내야 하는 연기자의 길 외에 그녀에겐 연기 외적인 영예와 또한 그만큼의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연기 외에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 제 연기



를 보고 있으면 부끄럽고 화도 나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하지만 연기자라는 건 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에요. 내가 다른 이의 삶을 살고, 또 그럼으로써 보는 이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매력이 아닐까요?"라는 그녀를 보면, 하나의 세계에 대해 강한 끌림을 느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채근과 열의가 묻어난다.

우리 정서의 큰 틀은 '사랑과 정'

주말극장 「파도」를 통해 쟁쟁한 선배들 속에서 차근차근 연기 수업을 쌓고 있는 그녀는, 주눅이 들만도 하건만 오히려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배우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일 게다. 임예원은 요즘 자신이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언젠가는 다시 미국으로 가 연기 수업을 받고 싶지만)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을 제대로 연기해 낼 바탕을 체득하는 일. 그녀가 느낀 우리 정서의 가장 커다

란 틀은 바로 '어머니'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랑과 정'이란 다. 특히 한국적인 풍경 속에서 그녀가 느낀 '사랑과 정'은 조금은 더 특별한 느낌이었다고.

"철 없고 욕심 많고 꿈도 크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뭐 저런 애가 있어?'라며 질타를 보내기보다는 '그 나이 땀 다 그렇지'하며 싱긋 웃어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캐릭터로 영미를 표현하고 싶어요"라는 임예원의 색깔은 '하얀 색'이다.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 또한 연기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소화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 색을 좋아하거나, 그녀를 보는 나로서도 길고 푸르고 하얀 그녀를 보면, 개화를 향해 소리 없는 생명 운동을 하고 있을 칼라의 이미지가 자꾸만 연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닫혀 있는 그녀의 하얀 꽃잎에는 연기라는 수액이 왕성히 흡인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연기자 임예원의 성장을 한 번 지켜보기로 하자. **SBS**

글 / 한정엽 · 자유기고가, 사진 / 서창식

저마다의 가슴 안에는 해가 들어 있다. 어떤 것은 흐린 날 황혼녘의 그것처럼 제 빛을 잃은 채 시들하고, 어떤 것은 정수리 위 높은 곳에서 하하 웃으며 세상을 굽어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채 볼 수도 없는 이른 새벽에 저 홀로 깨어 아침을 열어가는 해도 있다.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이 해라는 것이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인 바, 빛나는 해가 가슴에 선연할 때 그 조도만큼 얼굴에도 빛이 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밝기나인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축수 낮은 전구처럼 흐릿해져 가는 것 또한 이것의 속성이어서 거울 들여다볼 때마다 안타까움만 남는데... 그래서인가 보다, 김민경 씨의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까닭이.

좋아요. 드라마의 컨셉트에 맞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손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생겨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가 만만한 일이나 하는 사람은 아니다. 누구 못지 않은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녀의 일은 격무의 연속이다. 그녀가 하는 일은 한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직은 생소한 분야지만, 이 일은 해외에서 이미 비중 있는 부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일 정도로 방송에서는 그 가치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분야다.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는 실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



SBS아트텍 아트2팀
의상 스타일리스트

김민경

그의 손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드라마의 표정들

그녀에게는 빛이 있다. 바라보고 있으면 공연히 행복해지는, 저절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렇다고 별다른 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끔씩 생각난 것처럼 싱긋이 웃는 것이 유별나다면 유별나다.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그녀의 무엇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해질 때, 비로소 그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얼굴이 있다. 그녀가 일에 매달려 있을 때를 본 사람은 안다. 「그 얼굴에 햇살」이라는 지난 시절의 유행가가 왜 생겼는지.

온 세상이 일주일쯤 정전될 수는 없을까?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드라마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매번 새로지요. 그게 너무

존재하는 스타일리스트다.

그녀가 이 일을 한다. 「토마토」의 김희선과 김지영, 김석훈이 그렇고 「홍길동」 또한 그녀의 손으로 완성됐다. 착하고 밝은 김희선에게는 파스텔톤을, 남자를 주무르며 제 욕심을 확실하게 챙기는 김지영에게는 대비되는 뚜렷한 옷을 입혀,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준다. 쉬운 일이 아니다. 출연하는 연기자들의 튀고 싶은 욕심을 은연 중에 자제시켜가며 드라마 전체적인 색깔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 내야 하는 것이다. 드라마 세트의 색깔에서부터 시대적 배경, 의상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 드라마가 시작될 때면 밤새는 것쯤은 다반사로 여겨야 한다. 너무 피곤에 겨워 한 일주일 정도만 세상이 정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내고, 연기자의 체형과 감성, 취향까지 파악

조그마한 실수도 시청자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눈에 띄지 않는 소품 하나로도 한 작품의 희비가 엇갈린다. 그녀가 하는 일이 그렇다. 드라마의 시대에 맞는, 배경에 맞는 스타일을 창출해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것이 생겨 '적당히'가 통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에 이것은 통용되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야 한다. 기껏 해놓은 하드보드(샘플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때도 허다하다.

새벽 퇴근이 즐거워 진다?

“가끔이긴 하지만, 극중 인물은 평범한 중산층인데 옷은 호화찬란하게 입으려는 연기자들이 있기도 해요.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회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내 손을 거쳐 완성된 인물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그 프로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언제 피곤했나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평생 업을 삼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잖아요. 제가 그래요. 한 드라마에 대한 일을 마치고 새벽에 퇴근할 때의 기분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

기 때문이었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한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 여름밤의 꿈」의 무대 의상 스타일 작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무대 의상을 접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자 그녀의 관심은 온통 여기로 집중됐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의 속성이 그녀를 매료시켰다.

시놉시스를 여러 번 읽어 외울 정도가 되어서야 작업에 임하는 그녀는 프로다. 그만큼 치밀하고 꼼꼼하다. 일에서 라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를 그녀이게 한다. 일에 열중해 있는 그녀를 보면 문득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SBS**

글 / 김명순 · 자유기고가, 사진 / 김연식



“매일 아침, 금강산을 바라보십시오”

통일의 그 날만큼이나 빠져린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금강산이 우리 앞에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SBS는 우리 모두에게 추억과 위안이 되어 줄 최고 해상도의 금강산 사진을 시청자들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사진 종류** 만물상, 구룡 폭포, 비봉 폭포, 귀면암, 삼선암, 절부암, 칠층암, 하늘문 등
- **구입 신청** SBS 데이터정보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Tel : 02)369-1327, 1318 / Fax : 02)780-6436
E-mail : tough@ sbs.co.kr
- **구입 방법** 신청 후 외환은행 계좌(서울방송, 234-13-01077-2)으로 송금하시면 순서대로 10일 이내 등기 우송. 또는 직접 방문 수령 가능
- **문의 전화** 02)369-1327(담당자 : 김지환)
- **기타** 다양한 금강산 사진을 SBS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크기	판매 가격(원)	발송 방법
1	40×50	16,500	등기 발송
2	50×60	22,000	
3	30×90(파노라마)	27,500	
4	50×100	27,500	
5	60×100	33,000	
6	70×100	38,500	
7	80×100	44,000	
8	50×150(파노라마)	35,000	구매자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비용은 개인 부담)
9	100×125	55,000	
10	100×150	60,500	
11	100×175	71,500	
12	100×200	77,000	
13	100×250	93,500	
14	100×300(파노라마)	110,000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문화 중독자 들이여! 내게로 오라

연출 / 박성원

진행 / 김갑수

월~토요일 오후 4시 5분 방송

우리의 몸 안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우리가 잠든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내부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심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장이라는 24시간 편의점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불빛을 밝혀주는 동력을 어디에서 제공받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까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아마도 24시간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만큼이나 제각각의 대답을 만날 것이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대답 중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혹은 수줍게라도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책하고 놀자」는 일단, 이런 우려를 전면 부정하면서 출발한다.

책 읽기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동시 체험

우리 주위에 의외로 문화 중독자들이 많다. 밀레니엄 중후군 중의 하나인 이 문화 중독증의 증상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의 영화관람, 그리고 매일 활자 비스



한 것들을 읽어야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책하고 놀자」는 그러한 문화 중독자들의 금단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진작에 나타났어야 할 프로라는 게 제작진의 의견이다.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게 되풀이해서 이 프로를 복용하게 만든다?

「책하고 놀자」를 문화중독자들에게 복용하게끔 하기 위해 제작진이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인 김갑수다. 그는 시인이면서 탁월한 말꾼이다. 자신을 ‘세월의 거지’라고 서슴없이 칭하며, 「삶이 괴로워서 음악을 듣는다」는 책을 낼 정도로 음악에 있어서도 전문가다. 그의 얼굴을 언뜻 보면, 고뇌하는 지식인의 주름이 미간에 온천 마크를 그리고 있구나... 정도지만 자세히 보면, 그 주름은 누아르적인 분위기와 기분 나쁘지 않은 시니시즘을 내포하고 있다. 천상 시인의 얼굴이다.

그는 꽤 자주 초췌한 모습의 불쌍한 홀아비(실제로 그의 아내 자라는 강력하다)의 몰골로 스튜디오에 등장하곤 하는데, 그 까닭의 9할 정도(나머지 1할의 정체는 아무도 모름)는 ‘책’ 때문이다.



그렇게 밤을 지새워 읽어온 책이 「책하고 놀자」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책읽기의 괴로움'과 '행복한 책읽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잘 정돈된 어휘로, 편안하지만 강약이 분명한 어투로 그 책의 기상도를 확실하게 그려준다.

무작정 신뢰해도 좋은 프로

「책하고 놀자」에는 많은 책들이 있다. 하지만 이 양적인 것 안에서 절대로 깊이와 질을 놓치지 않는다.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신간 속에서 소개될 책을 선별할 때에는 사뭇 경건하기까지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신뢰해도 좋다. 이문열, 최인호, 양귀자, 황지우, 박상룡, 신경숙, 은희경, 박영한 등의 작가들을 모셔 작가와 문학관을 진지하게 탐색해온 '작가 탐구', 그리고 저자를 초대해 화제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책이 알고 싶다', 저명 인사들의 독서 이력을 통해 인생관을 엿보는 '책과 나', 그리고 요일별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는 불문학박사 최영선 씨의 '인터넷 북 카페', 중앙일보 김창호 기자의 '가끔은 심각한 책이 읽고 싶다', 박유하 교수의 '일본문학 이야기', 한겨레신문 최재봉 기자의 '문학 아이콘', 정진이의 '아이책 디딤돌', 하재봉의 '스크린 문학' 등 전문

섹션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말 부록처럼 매력적으로 삽입된 '청취자 참여 코너'도 진지한 재미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부디 오후 4시 5분, FM 103.5메가헤르츠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를 복용하기 바란다.

- 좋은 글을 보고 나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 방금 읽고 난 책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내 삶이 미궁에 빠지는구나 싶을 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었던 책이 적어도 한 권은 있다.
-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삶이 뻔하게 느껴져 신물이 날 때... 소설 몇 권과 함께 들어박히는 일로 멋을 부리곤 한다.
- 사람들이 버스에 우산을 두고 내리듯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영혼을 두고 내린다고 믿는다.
- 그리고... 그냥 심심한 사람. **SBS**

글 / 한현주 · 「책하고 놀자」 작가, 사진 / 서창식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10대의 프로그램

「두나, 승현이의 텐!텐!클럽」

연출/ 김광태 · 진행 / 김승현, 배두나 · 매일 밤 10시 방송

SBS POWER FM(107.7메가헤르츠) 밤 10시. DJ를 누구로 하나? 주요 타깃으로 잡은 10대의 정서에 부합하는 DJ를 찾는 과정은 실로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DJ 후보 선정에서부터 섭외까지 그 고단한 과정을 거쳐 결국 배두나, 김승현 투톱 체제로 결정이 났다. 중성적인 매력으로 드물게 언니 부대까지 몰고 다니는 신예 배두

나와 모델 출신으로 VJ, CF 모델로 한참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현. 이 둘의 기용은 FM 밤 10시 프로그램 DJ로는 파격적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큐시트가 안 보여요!

4월 26일. 드디어 이 둘은 마이크 앞에 앉았다. 그러나 이 두 DJ의 첫마디는 “차장님, 큐시트가 안 보여요”였다.

라디오방송 경험도 몇 번 없는데다 생방송이 주는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었으니 큐시트가 제대로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어떻게 2시간 생방송을 했는지 모르는 채로 첫 방송은 그렇게 끝났다. 방송을 끝내고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두 DJ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괜찮다. 앞으로 잘 하면 된다.” 서로 등을 토닥이며 다시 한 번 의욕만을 되새김질해야 했던 첫 방송의 일화다.

배두나와 김승현은 욕심이 많은 신세대다. 그 당찬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한 대목.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배두나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순간 스튜디오는 다시 긴장 상태.

“차장님, 속상해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마음처럼 안 돼요. 정말 잘 할 수 있었는데...” 욕심껏 잘 하고 싶었는데 서툴기만 한 자신을 자책하는 눈물이었음을 안 순간, 스태프들이 다시 한 번 의기충천했음은 물론이다.

절반의 성공, DJ는 먼저 뜨고

「텐!텐!클럽」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요즘, 배두나와 김승현은 각종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MC로 등극하며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다. 프로그램의 DJ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다. 그들의 재능이 검증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제 첫 방송 후 한 달이 가까워오는 이즈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밤 10시 대 타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 있어서 「텐!텐!클럽」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올해 성년이 된 배두나와 고등학교 3학년인 김승현, 둘의 평균 나이는 19세다. 그야말로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10대의 프로그램 「텐!텐!클럽」은 10대 청소년들의 은밀하고도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일주일이 꽉 채워진다.

청취자들의 황당하고도 별난 경험담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월요일 1,2부의 「뜨아, 너무해」,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이 본격적인 노래 선생님이어서는 「임창정의 썩썩썩」도 월요일 코너다.

까까머리 홍석천의 재치와 카운셀링이 빛나는 「미워 죽겠어」, 국내 왕복 항공권을 놓고 지혜와 순발력을 겨뤄보는 코너 「God의 I love family」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 퀴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적극적인 추천으로 만들어진 코너 「핑클의 코디 닥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과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코디해 준다.

10대들의 감각을 업그레이드하기!

웃음과 감동이 적절하게 안배된 일주일의 차림표중 감동과 여운을 원한다면 목요일 3,4부와 금요일 1,2부를 놓치면 안 된다. 어느날 갑자기 슬랩스 찾아와 사춘기를 몽땅 뒤흔들곤 했던 우리들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스타들의 첫사랑 이야기가 뮤직 드라마로 꾸며지는 목요일의 「love to love」는 이승환과 배두나, 김승현 두 DJ의 활약으로 더욱 빛이 난다.



특별한 사연, 특별한 노래, 특별한 휴식이 있는 「현정네 우체통」, 그리고 끼있는 청취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색깔대로 1시간을 꾸미는 「송은이의 일요일이 아이 좋아」는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입소문만으로도 최고의 화제가 되고있는 「텐!텐!클럽」의 주메뉴이다.

6월부터는 남희석, 신화, 강호동 등이 새로운 게스트 군단으로 합세를 할 예정이니, 「텐!텐!클럽」은 이미 정상 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셈이다.

외출했다 돌아와서 양치를 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루라도 텐텐을 듣지 않으면 귀에 귀지가 생긴다. 매일매일 신선하게 재충전되는 「텐!텐!클럽」. 매일밤 10시, 「두나, 승현이의 텐!텐!클럽」으로 우리의 감각을 업그레이드해 보자. **SBS**

김광태 · 「두나, 승현이의 텐!텐!클럽」,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건전하고 서민적인, 가치있는 드라마

주말극장 「파도」를 보고

어느날 우심코 TV를 켜는데 못보던 드라마가 재방송 중이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려니 재미있기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나 자신이 마치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바로 「파도」였다. 그 날 나는 그 드라마에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대사가 있었다. 김영애 씨가 자기 딸에게 한 말인데 '인생에서는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날, 기쁜 날도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을 바닷가인 그곳 실정에 맞게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쳐서 안 좋은 날과 파도가 잔잔한 좋은 날이 있듯이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라는 대사였다. 이 드라마의 제목과 모티브가 그 대사에 깊게 녹아 있는 것 같았다. 그 날 김영애 씨의 연기 중에서 딸을 잘 되라고 마구 때리는 장면은 거의 일품이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라고 공감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영애 씨가 대학 등록금과 하숙비가 없어서 찢쩍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잃은 것을 볼 때에는 같은 대학생 입장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찡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드라마인 것 같다. 서민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한 볼 가치가 있는 좋은 드라마다. 요새 SBS드라마는 참 건전하고 서민적인 프로를 만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또 다른 예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은실이」가 있지 않은가? 가치있는 드라마, SBS 드라마, SBS 화이팅!

배윤철(전남 여수시 돈덕동)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꾸미지 않은 모습 보여줘야...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보고

처음 이 프로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역시 SBS가 좋은 방송을 발굴해 냈구나 하는 마음에서 박수를 보냈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앙 방송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들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웃음을 주는 걸 보면서 나도 재미있게 보았다. 그러나 매 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점차 시청률을 위해 소품화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절제와 감춤의 마는 요구하지 않은 채 '주책'과 '푼수짓'만을 부채질하는가. 그들을 보며 웃어댈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에선 같은 노인들조차도 그것만이 자신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기 바란다.

이제완(경기도 고양시 일산)

훈훈하게 그리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

아침 연속극 「지금은 사랑할 때」를 보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한없이 삭막해질테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 사랑이 있기에 한없이 행복하면서 또한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다양하게 그려 나가는 「지금은 사랑할 때」는 그래서 시청자의 가슴에 쉽게 와닿는다. 제각기 다른 사랑의 형태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게 된다. 누군가는 너무나 많이 열리고 설키는 갈등 구조라 시청자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아침 방송에 부적합한 소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도의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세 자매와 어머니가 곳곳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현실성도 있고 훈훈한 느낌을 준다. 이제는 민재와 라나의 사랑, 혜지와 민국의 사랑이 결혼으로 맺어졌고 은지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고 있다. 결혼이 행복의 완성이 아니듯 계속 토닥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은성(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쉬워

드라마 스페셜 「토마토」를 보고

SBS 드라마 스페셜에서 현재 방송하고 있는 「토마토」는 젊은층을 주시청층으로 제작한 듯하다. 스타군단의 출연진과 만화적 스토리 전개는 도화적 영상과 함께 드라마로서 인기몰이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먼저 신세대 연기자와 중견 연기자의 절묘한 하모니를 드라마 중간중간에서 엿볼 수 있고, 특히 극의 주인공인 복길이 김지영의 약녀 이미지로의 연기변신과 극 후반에야 나타나겠지만 김희선을 신데렐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만화적 내용 전개와 맞물려 젊은층의 시선을 사로잡을만 하다. 더불어 박원숙·김자옥, 김희선·김지영 등 등장 인물간의 팽팽한 대결구도는 극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토마토」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은 젊은이의 감각에 맞는 내용과 분위기는 좋는데 자칫 현실에 대한 진지함 부족에서 오는 가벼움이다. 요즘 드라마는 가상의 현실보다는 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현실 지향적인 드라마가 시청자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하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토」가 보여주는 사회 역시 현실 속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모습 보다는 꿈을 그려가는 듯한 상상의 세계만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드라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예술적 감수성과 오락적 재미를 동시에 안겨주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 장르이다. 드라마를 통해 보여지는 삶이 '내 삶이려니' 하는 시청자의 동일화 현상과 이 시대 시청자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구조를 방송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시영(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사회적 폐단에 대한 감시의 끈을 조여야

「제3취재본부」 '팔러가는 환자들' 을 보고

5월 11일 방영된 「제3취재본부」의 '팔러가는 환자들' 을 시청하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부지불식간에 당할 수 있는 것이 다름아닌 예기치 않은 사고이다.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만 취했어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을 환자를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일부러 먼거리의 병원으로 후송하여 결국은 중태에 빠뜨린 작태는 굳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의사로서의 인술을 포기한 장사꾼에 다름아닌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다름아니다. 병, 의원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만 할 사회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3취재본부」에서는 이러한 류의 사회적 폐단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추적, 보도하여 개선되어지도록 각고정려해 주길 바란다.

황복희(대전시 동구 기양동)

청량음료 같이 시원하고 재미있는 화면 아쉬워

「영화특급」을 보고

SBS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펜을 들었다. 타 방송사의 토요명화, 일요명화와 차별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SBS TV 금요일의 「영화특급」.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영화특급」에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너무 오래된 것이거나, 저런 영화가 있었나 할 정도의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언젠가 한 번은 '기대하십시오!' 해서 보았더니 80년대 영화인 「토탈리콜」이었다. 물론 기억이 가물가물하던차라 다시 보긴 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재탕에 재탕을 거듭했던 것이다. 왕조현의 「천녀유혼」, 「멜리스」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었던 「도성」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보았던 영화임에 틀림없다. 명절, 연휴 때만 해도 특집, 특선영화다 싶으면 고전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오래된 영화인 경우가 많다. TV가 이미 생활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시청자의 기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청자를 외면하는 진행이 아닌가 싶다. 영화관에 갈 시간조차 없이 사는 바쁜 요즘의 시청자들과 다른 프로를 제치고 금요일 밤 SBS를 고집하는 영화마니아들에게 청량음료와 같이 시원한 화면을 제공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원은희(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SBS 매거진」이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TV나 라디오 방송 전반에 관한 비판이나 격려, 또는 저희 SBS에 바라는 바 등을 200자 원고지 2~4장 가량의 글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SBS 매거진」에 게재되며 보내 주신 분께는 앞으로 1년 간 「SBS 매거진」을 우송해 드립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유익한 의견을 기다리며 항상 참신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SBS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마감은 매달 1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 우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SBS 홍보팀 「SBS 매거진」 담당자 앞

KBS

MON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11:45 머니 센스 재방송

TUE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11:45 머니 센스 재방송

WED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11:45 머니 센스 재방송



SBS

CHANNEL 6 1999년 6월 5일 현재

PM

4:00 내 친구 바나바나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15 르포특급 5시
5:35 빨간 망토 차차
6:15 기동전함 나데카
6:45 행진
7:15 접속! 무비 월드
8:00 SBS 8 뉴스
8:40 머니 센스
8:55 일일드라마 약속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월화드라마 은실이
10:55 추적! 사건과 사람들

AM

00:00 SBS 나이트라인
00:15 스포츠 와이드

PM

4:00 내 친구 바나바나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15 르포특급 5시
5:35 빨간 망토 차차
6:15 기동전함 나데카
6:45 행진
7:15 이상벽의 살맛 나는 세상
8:00 SBS 8 뉴스
8:40 머니 센스
8:55 일일드라마 약속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월화드라마 은실이
10:55 제3 취재본부

AM

00:00 SBS 나이트라인
00:15 스포츠 와이드

PM

4:00 내 친구 바나바나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15 르포특급 5시
5:35 우리는 챔피언
6:15 지오레인저
6:45 행진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8:00 SBS 8 뉴스
8:40 머니 센스
8:55 일일드라마 약속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드라마 스페셜 토마토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00:00 SBS 나이트라인
00:15 스포츠 와이드

「은실이」 출연진 사랑의 성금 전달

월화 드라마 「은실이」 출연진이 광고 출연료 전액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에 기탁, 드라마 밖에서도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의 모습을 현실 감 있게 담아 장안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은실이」에 출연중인 연기자들이 신 용협동조합 중앙회 광고에 합동으로 출



연, 광고 출연료로 6,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선뜻 내놓은 것. 특히 성가정임양원은 신생아부터 돌 전까지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은실이와 처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게 됐다고.

전달식은 지난 5월 13일 SBS 본사에서 있었다. 이날 반효정, 임현식, 전혜진 등의 출연자 대표들은 성가정임양원의 이레나라 원장 주수녀에게 직접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THU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11:45 머니 센스 재방송

FRI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특선 외화 시리즈 세자매
11:45 머니 센스 재방송

SAT

AM

6:00 토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
9:00 열린 TV 시청자 세상
9:45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SUN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4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2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10 갑론을박 동서남북
9:00 특명! 아빠의 도전
9:50 LA 아리랑
10:50 좋은 친구들



PM

4:00 내 친구 바나바나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15 르포특급 5시
5:35 우리는 챔피언
6:15 지오레인지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머니 센스
8:55 일일드라마 약속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드라마 스페셜 토마토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0 SBS 나이트라인
00:15 스포츠 와이드

PM

4:00 내 친구 바나바나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15 르포특급 5시
5:35 우리는 챔피언
6:15 꼬마이사 돌이
6:45 행진
7:15 최고의 밥상
8:00 SBS 8 뉴스
8:40 머니 센스
8:55 일일드라마 약속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분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AM

00:3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PM

12:00 SBS 뉴스
12:10 크로우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5:00 SBS 뉴스
5:10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6:00 기쁜 우리 토요일
7:0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파도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 싶다
11:50 SBS 골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PM

12:00 SBS 뉴스
12: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5:00 SBS 뉴스
5:10 SBS 인기가요
6:00 황수관의 호기심 천국
7:00 새 프로그램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파도
9:50 일일드라마 카이스트
10:50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AM

00:10 생방송 아주 특별한 사랑
00:50 SBS 나이트라인

「약속」의 사총사, 119명예대원으로 위촉

일일드라마 「약속」의 119 사총사 정선경, 정호채, 정홍채, 배동성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부터 119 명예 구조·구급대원으로 위촉됐다.

「약속」은 그동안 119구급·구조대를 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며 119대원들의 희



생적인 삶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왔다. 이번엔 4명의 연기 자들에 대한 119명예 구조·구급대원 위촉은 SBS TV가 「약속」을 통해 119대원들의 생활상을 심도있고 생동감있게 표현함으로써 대국민 소방홍보에 일익을 담당한 데 대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감사를 전하며 추진,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촉장 수여식은 6월 2일 실시되며 구조대원으로 출연중인 정호채 씨와 구급대원으로 출연중인 정선경, 정홍채, 배동성 씨는 119대원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더욱 실감나는 연기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

FM 103.5MHz
AM 792KHz

SBS

CHANNEL 6 1999년 6월 1일 현재

MON - SAT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SBS Good morning japanese
- 6:3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8:30 배병휴의 경제레이다
- 8:40 황수관의 신바람 건강
- 8:55 공항정보
- 9:05 김현주의 희망본부 103.5
- 11:05 SBS 건강 상담실
- 11:40 낮 종합뉴스

PM

- 12:00 정선희 · 홍진경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김찬식, 전여옥의 밀레니엄 정보 쇼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00 저녁 종합 뉴스
- 6:20 이숙영, 윤정수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염웅석 · 이현경의 투나잇 쇼
- 9:30 손범규의 스포츠 쇼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야간비행
- 1:00 라디오 문학여행, Paper Station
- 2:00 Producer's Choice / 이윤경의 Cine Music Club
- 3:00 Producer's Choice /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 4:00 Producer's Choice / 김국은의 Sweet Music

월~토요일

- ▶ 09:00~11:00 매시 정각에 뉴스
- ▶ 13: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SUN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TEPS English-Let's go TEPS
- 8:05 한비야의 세계 풍물 기행
- 9: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 10:05 가슴을 열어라

PM

- 12:05 10시간 생방송
- 일요일음악여행 1 · 2 · 3 · 4부
- 4:05 일요일음악여행 5 · 6 · 7 · 8부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일요일음악여행 9 · 10부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야간비행
- 1:00 라디오 문학여행, Paper Station
- 2:00 Producer's Choice / 이윤경의 Cine Music Club
- 3:00 Producer's Choice /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 4:00 Producer's Choice / 김국은의 Sweet Music



「카이스트」 음반발매 신세대 출연진들의 합창곡도 수록

일요드라마 「카이스트」의 주제가와 배경음악이 수록된 음반이 발매된다. 이 음반에는 교수 역을 맡고 있는 안정훈을 비롯해 신세대 학생으로 출연하는 이민우, 김정현, 채림, 이은주, 정민, 김정민, 마이클 등이 합창한 드라마 주제가 '마음으로 그린 세상'이 담겨있다. 이들은 각자 드라마 「카이스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합류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밖에 음반 수록곡으로는 현재 드라마 배경음악인 율웨이스의 '내가 있잖아'를 비롯해 이원석의 '언제까지라도', 정영주의 '사랑이 내게로 올 때', 박상욱의 '기다림으로'를 테마곡으로 선정, 그외에 3곡의 연주곡으로 총 8곡을 제작한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팝송 세어의 '빌리브'와 슈거레이의 '에브리 모닝'도 함께 수록된다.

MON - SAT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박영일의 싱싱 모닝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마숙입니다
11:00 송승환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변정수의 앳! 2시다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두나, 송현이의 텐! 텐! 클럽

AM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1:00 성시원의 음악천국
2: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3:00 사운드 오브 뮤직(BGM)

SUN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박영일의 싱싱 모닝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마숙입니다
11:00 송승환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변정수의 앳! 2시다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두나, 송현이의 텐! 텐! 클럽

AM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1:00 김홍탁의 재즈 스테이션
3:00 사운드 오브 뮤직(BGM)

Σ
E
POWER
107.7MHz
S
B
S

캐릭터 · 애니메이션 전문잡지 「캐니」 6월 창간

SBS프로덕션은 캐릭터 · 애니메이션 전문 월간잡지 「캐니」를 제작, 출간한다.

국내 애니메이션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캐니」(CANNI: CHARACTER+ANIMATION)는 영상세대, 캐릭터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규 트렌드 창출을 위한 색깔 있는 기사와 새롭고 다양한 감각적 오락과 정보, 그리고 국내외 제작사와 연계, 캐릭터 · 애니메이션의 지속적 제작현황을 소개한다. 더불어 주관심층인 청소년의 관련업계 진출과 관련된 내실있는 정보 등을 다루게 된다.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작품과 인물에 대한 분석, 만화 지망생이 보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등을 기획기사로 게재한다. 또한 현재 제작중에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현황과 각종 행사를 취재, 한국 애니메이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외에도 애니메이션 패러디를 테마로 한 '연재만화', 독자가 참여하는 '릴레이 만화', 다양한 문화장르에 대한 소개를 다룬 '체형 여섯 가지'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SBS 방송아카데미 제8기 수강생 모집

위성 방송 실시, 프로덕션 활성화, 영상 산업계의 팽창 등 방송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SBS방송아카데미에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SBS방송아카데미의 장점

- 마이크로 방송 실시, 전 수강생이 참여,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방송하는 국내 유일의 방송 실기 교육
- 국내 최다의 최신 장비 · 시설
- 국내 최다의 교육 시간
- 대부분 현업 중인 실무 경험 풍부한 우수 교수진
- 타 아카데미 비교 최고의 취업률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최첨단 교육 과정 신설(디지털영상편집 과정, 영상조명 과정, 영상무대디자인 과정)

SBS방송아카데미는 교육의 질과 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모집 과정

모집 과정	지원 자격
PD	대졸(예정) 이상
카메라	전문대졸(예정) 이상
방송 기술	전문대졸(예정) 이상
아나운스 · MC	전문대졸(예정) 이상
구성 작가	전문대졸(예정) 이상
시트콤 작가	전문대졸(예정) 이상
영상 번역 · 더빙 연출(영어)	대졸(예정) 이상
영상 번역 · 더빙 연출(일어)	대졸(예정) 이상
분장 · 광고 메이크업	고졸 이상
컴퓨터 그래픽	학력 제한 없음
미디 음악 · 음향	학력 제한 없음
디지털 영상 편집	학력 제한 없음
영상 조명	학력 제한 없음
영상 무대 디자인	학력 제한 없음

○각 과정 모두 6개월 과정이며 1999년 7월 12일 개강 예정

2.전형 절차 : 서류 접수 후 면접

3.지원서 교부 및 접수

- (1)교부 · 접수 : 1999년 5월 20일(목)~6월 18일(금)
오전 9시~오후 6시(휴일도 접수)
- (2)장소 : SBS 여의도 본사 1층
- (3)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
(<http://www.sbsacademy.co.kr>)

4.제출 서류 : SBS방송아카데미 소정의 지원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5.문의처

- 안내전화 : (0344)916-1046, 1047
- ARS : (02)700-2700
- PC 통신 : GO SBS (방송아카데미)
- 인터넷 : <http://www.sbsacademy.co.kr>

SBS 방송아카데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소박한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다.

지난 해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추석특집으로 중국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보았던 적이 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의 품에 잡히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 조선족 동포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독립운동하다가 미처 귀국하지 못한 우리들이 왜 우리나라에 못 돌아간단 말입니까? 돈이 많아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간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지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분들 가운데 유옥순 할머니(72세)의 이야기는 촬영팀 모두를 눈물 범벅으로 만들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일곱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건너와 언젠가 자리가 잡히면 가족들 모두를 불러오겠다는 희망 하나로 살아왔다는 것. 그러나 할머니는 고향에 어머니와 언니가 살아 있어도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호적자가 되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칠십 평생 고향에 돌아갈 생각만으로 살아오신 할머니가 우리 촬영팀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할머니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정화수를 떠 놓고 기도하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희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린 아이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고, 황혼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무언가 희망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

칠십 평생 조국에 한 번 가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마침내 그 희망이 이루어진 유옥순 할머니의 감격의 눈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희망은 스스로 저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실을... **SBS**